

‘아버지의 일기장’에 담긴 5월의 아픔, 그리고 진실

창작집단 소리공장 창작뮤지컬
16일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
창작곡·샌드아트·태권무 등 다양



지난 달 '아버지의 일기장' 사전녹음 및 리허설을 진행하는 모습. <소리공장 제공>

“1980년 5월... 그리고 광주”
 당시 신군부는 정권을 찬탈하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했고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했다. 그로부터 43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폭압의 시대가 남긴 ‘상흔’은 여전히 깊게 각인돼 있다.
 그 시절을 써내려간 일기장을 펼쳐볼 수 있다면 어떨까. 아마도 일기 속에는 고통, 분노, 민주화에 대한 열망 등이 빼곡히 쓰여 있을 것 같다.
 민주화를 외치던 그날의 역사를 재현하는 공연이 펼쳐진다.
 창작집단 소리공장(대표 이선영)이 창작뮤지컬 ‘아버지의 일기장’을 오는 16일 오후 3시, 7시 30분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연다.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를 초점화해 아버지의 일기에 적힌 광주의 아픔을 뮤지컬 형식으로 되짚어보고 위로를 건네는 내용이다. 1980년 당시 비극을 경험했던 한 아이가 40대로 성장하면서 느낀 감정들을 다양한 예술 장르로 담아낸다.
 김소월의 ‘먼 훗날’, 광주 5·18을 담아낸 박용주 시 ‘엄마의 강’ 등 시인들의 시를 모티브로 만든 소리공장의 창작곡을 감상할 수 있다.
 민중항쟁을 상징하는 곡이자 5·18 관련 공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임을 위한 행진곡’도 울려 퍼질 예정이다. 이어 ‘I’m in love with you’, ‘영웅부자’ 외에도 랩으로 가사를 재운 힙합 형식의

‘Take Off’와 ‘May be’도 시대적 아픔을 풀어낸 다.
 5·18의 희생과 저항정신 등을 환기하는 ‘시위대 군무 곡’, ‘선혈에 보답하리라’, ‘군인 군무 곡’ 등 도 라이브 밴드의 연주를 곁들여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왜 그랬을까’, ‘엄마의 강’, ‘하늘에서 저를 보나오’도 레퍼토리에 있다. 박정연, 김희선, 김창현, 최재우 등이 출연하며 샌드아트, 태권무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된다.
 한편 뮤지컬 ‘아버지의 일기장’은 2018년 초연한 뒤 2020년 갈라콘서트 형식으로 관객들을 만

나왔다. 공연을 기획한 소리공장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롯해 전래동화, 인형극 등을 각색해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결성됐다.
 이선영 대표는 “뿌리 깊은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에서 상처 깊은 5월의 그날을 추모하는 뮤지컬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감회가 깊다”며 “한 가족의 아픔에 투영된 민주화 정신을 공연을 통해 들여다보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 희생 영령들을 위무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변신’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

박의천 개인전, 17일까지 드영미술관

프란츠 카프카의 단편소설 ‘변신’은 세계적인 고전이다. 주인공 그레고리 잠자가 어느 날 잠에서 깨었을 때 자신이 한 마리의 벌레로 변해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그는 영업사원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한 번도 아프지 않았고 열심히 일했다.

작품은 현대사회에서 부속품으로 전락한 인간의 민낯을 날카로운 풍자와 성찰로 그렸다. 과연 그레고리 잠자가 아닌 내가 쓸모없는 벌레로 전락한다면 어떻게 될까.

전시장에서 카프카의 ‘변신’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변신’이라는 주제부터 눈길을 끌기 때문이다. 작가가 그 같은 주제를 쓴 것은 무엇 때문일까.

드영미술관 1전시실에서 오는 17일까지 열리고 있는 박의천 개인전.

예상했던 대로 그로테스크하고 불쾌감을 주는 작품들이 눈에 들어온다. 괴물 같기도 하고 흉측한 사람의 얼굴 같기도 하다. 작가가 의도하는 것은 원래 우리들의 모습은 그와 같다는 것인지, 변신을 한 상태의 모습이 그와 같은 불편함을 유발한다는 것인지 짐작하기 어렵다.

작가의 작품 속 붉은 색은 안전지대 밖의 위험한 자극을 상징한다. 사람들은 외부의 자극과 위협을 벗어나 새로운 존재로 변신하려 한다. 물론 그것은 본능이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작가는 현대사회에서 ‘변신’은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한



‘Fake life’

편으로 내면의 진실을 감추고 살아야 하는 고통을 불쾌한 모습들로 이미지화했다. 어느 쪽이든 다소간의 불편함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조서휘 학예실장은 “작가가 던지는 메시지는 진실된 나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남들처럼 변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묻는 것 같다”며 “‘변신’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과 아울러 오늘의 사회에서 ‘변신’이 주는 다양한 의미 등을 다각도로 숙고해볼 수 있는 전시”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푸치니가 가장 사랑한 오페라 ‘나비부인’ 무대에

광주-대구시립오페라단 교류공연
15~16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나비부인’ 공연 장면.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푸치니가 가장 사랑한 오페라로 알려진 ‘나비부인’은 주옥같은 아리아 ‘날 사랑해줘요’, ‘어느 낀날’, ‘저녁이 다가오는데’ 등으로 명작 반열에 올랐다.
 존 루터 롱이 쓴 동명의 장편소설을 원작으로, 일본 나가사키를 배경 삼아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초초상’의 비극적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이 달빛동맹 교류공연 오페라 ‘나비부인’을 오는 15일(오후 7시 30분), 16일(오후 3시) 이틀에 걸쳐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연다.
 2019년 시작한 ‘오페라 달빛동맹’ 교류공연은 이번이 세 번째 합작 무대로, 정갑근(대구오페라 하우스 관장)이 연출을 맡았다. 유럽 유수의 극장에서 ‘나비부인’을 150여 회 이상 공연한 소프라노 임세경, 풍부한 음역대로 고·저 음을 모두 소화하는 드라마틱 소프라노 이윤정 등이 출연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여기에 푸치니의 서정적인 선율과 동양 5음계를 가미, 이국적인 분위기도 느낄 수 있다.
 나비부인(소프라노)役に 임세경, 이윤정, 핑커톤(테너)役に 이현, 박신해가 출연한다. 사플레스(바리톤)는 공병우, 허호가 맡으며 스즈키(메조소프라노)는 사비나킴, 손정아가 연기한다.
 이외 극단 늘해랑, 대구오페라콰이어 합창단, 디오오케스트라 등이 협연할 예정이며, 헝가리교향악단과 서울시립오페라단 등에서 지휘자를 역

할 수 있다.
 나비부인(소프라노)역에 임세경, 이윤정, 핑커톤(테너)役に 이현, 박신해가 출연한다. 사플레스(바리톤)는 공병우, 허호가 맡으며 스즈키(메조소프라노)는 사비나킴, 손정아가 연기한다.
 이외 극단 늘해랑, 대구오페라콰이어 합창단, 디오오케스트라 등이 협연할 예정이며, 헝가리교향악단과 서울시립오페라단 등에서 지휘자를 역

할 수 있다.
 나비부인(소프라노)역에 임세경, 이윤정, 핑커톤(테너)役に 이현, 박신해가 출연한다. 사플레스(바리톤)는 공병우, 허호가 맡으며 스즈키(메조소프라노)는 사비나킴, 손정아가 연기한다.
 이외 극단 늘해랑, 대구오페라콰이어 합창단, 디오오케스트라 등이 협연할 예정이며, 헝가리교향악단과 서울시립오페라단 등에서 지휘자를 역

겨울 초입 ‘봄을 기다리며’

오피스 갤러리 오픈 기념전, 동구생활문화동아리연합회 31일까지



조향숙 작 ‘속삭임’



김옥자 작 ‘기다리는 마음’

‘사무실 속 이색적인 갤러리’.
 사무실 내 유휴공간을 갤러리로 꾸며 활용하는 문화기관, 단체들이 늘고 있다. 동구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창현)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오피스 갤러리’를 지난 1일부터 선보이고 있다. 대회의실인 다울실과 카페테리아 라운딩을 활용해 문화공간으로 꾸민 것.

문 대표는 “방문객과 지역 주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예술가들에 창작활동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오피스 갤러리를 매개로 문화활동이 다채롭게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갤러리 오픈 기념으로 동구생활문화동아리연합회 전시동아리 ‘서사모(회장 유재영)가 첫 번째로 초대됐다.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 주제는 ‘봄을 기다리며’.
 계절은 겨울 초입인데 회원들 작품은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득하다. 작품마다 화사한 봄에 대한 기대와 따스함이 담겨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리는 마음으로 가득하다. 작품마다 화사한 봄에 대한 기대와 따스함이 담겨 있다.

새해의 희망을 담은 작품은 개성적이면서도 다채롭다. 김옥자, 유재영, 조향숙, 김명석 등 16명 작가가 출품한 작품은 목향과 화사한 봄의 이미지로 그윽하다. 겨울 눈보라를 헤치고 피어난 동백을 비롯해 꽃망울 아래 앙증맞게 앉은 새를 그린 화조도, 인생의 연륜이 느껴지는 서예 작품 등은 오랜 시간의 수련이 느껴진다.

조동욱 문화진흥팀장은 “이번 오피스 갤러리 개관을 매개로 동구 지역 예술가들의 전시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한다”며 “한편으로 지역 예술인과 주민들의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도 의미있게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갤러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전남지역 교원들의 오케스트라 선율 ‘열정 그리고 회복’

19일 GS칼텍스 예올마루



지난해 여수교원교향악단(현 여수전남교원오케스트라)이 펼친 정기공연. <여수전남교원오케스트라 제공>

전남지역 초·중, 고교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이 중심이 되는 여수전남교원오케스트라(단장 서금열)가 제15회 정기연주회 ‘열정 그리고 회복’을 연다. 오는 19일 오후 7시 GS칼텍스 예올마루 대극장에서.
 공연은 열정과 회복이라는 두 주제에 맞춰 펼쳐진다. 1부는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과 바하의 ‘관현악모음곡 2번’ 등 음악가의 격정이 담긴 순수음악을 들려준다.
 이어 2부는 주제 ‘회복’에 착안, 영화음악 ‘쥘라식 파크’, ‘스타워즈’ 외 ‘메모리’, ‘기술편지’ 등을 감상하며 평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곡들로 채워진다. 히사이시 조의 ‘오션뷰 타운’, 푸치니의 ‘오 내 사랑’과 파울스의 ‘백만송이 장미’도 레퍼토리에 있다.
 순호보 상임지휘자가 악단을 이끌며, 이탈리아 파도바국제콩쿠르 입상 및 국립서울시립오페라단에서 주역으로 활동하는 소프라노 정혜숙 교수 등이 출연한다. 여수 출신 플루티스트 심고은은

독일 만하임국립합창단을 졸업했다.
 교원오케스트라는 2008년 국내 최초로 현역 선생님들로 구성된 교향악 단체다. 16년째 활동을 이어오면서 지역 및 전국 클래식 애호가들과 음악으로 소통해 오고 있다.
 주정숙 운영위원장(도원초 교장)은 “평소에는

교직원들이 아이들 교육으로 바쁘지만, 틈을 내 오케스트라 연주에 참여하며 음악적 감성과 문화 교육 역량을 길러 왔다. 이번 연주회는 그 결실을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무료 공연. 14일까지 온라인 예약.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오픈 스튜디오

서영기·박인선 작가 14~15일

서영기(회화), 박인선(혼합매체) 작가는 올해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에 참여해 창작활동, 해외 입주작가와의 문화예술교류를 진행했다.

두 작가의 작업 성과를 공유하는 오픈 스튜디오가 14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 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52 중외공원 내)에서 관람(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이 가능하다.

조선대 미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서영기 작가는 삶 속의 풍경을 그리면서도 내면의 감정을 투사해 표현하는 작업을 해왔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는 일관된 방식을 견지해왔다.

박인선 작가는 목포대와 전남대에서 회화를 전공했으며 회화 외에도 사진과 영상 등 다양한 매

체를 매개로 예술세계를 구현해왔다. 자연과 공간에 중심을 두고 그것을 재구성해 초현실적 이미지로 만드는 작업을 지속해왔다.

한편 오는 15일 오후 3시부터는 2층 세미나실에서 올 한 해 교류기관 해외레지던시 파견 작가와 함께 성과발표회도 진행했다.

시립미술관은 대만 타이난 ‘샤오롱 아티스트빌리지’에 관승찬 작가(5·6월)를, 독일 뮌헨 ‘빌라 발트베르타’(7·9월) 레지던시에 설박 작가를 파견했다. 이번 성과발표회를 통해 공유되는 현지의 경험과 사례는 해외레지던시 파견을 희망하는 작가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기 관장은 “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와 해외레지던시 파견작가의 성과 발표회는 입주작가들의 생생한 작업 현장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며 “레지던시를 계기로 지역 예술가들이 더 많이 세계무대에 진출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